朝鮮日報
夕刊朝刊合六面
發行所 朝鮮日報社

社說
日本中間階級의 政黨組織運動
中間的現象일뿐

一

無産政黨이 한번 禁止된 後에 그 再起運動이 자못 遲遲한 바 잇는 이때에 日本의 中間階級을 包擁하야 一大政黨을 組織할 運動이 잇는 것을 傳한다 그들 主張하는 人物들로 보면 無産政黨의 右翼을 成함만 하다 無産階級의 政治敎育을 目的하고 向者에 獨立勞働協會의 組織됨이 잇섯더니 今番의 中間階級의 政黨組織運動은 이 獨立勞働協會를 中心으로 하고 進行되다 그리하야 安部磯雄氏 吉野作造等諸氏가 理事長으로 하고 賀川豊彦 堀江歸一 近日中에 宣言과 綱領을 發表할 것이라고 한다 그리하야 이 黨은 議會主義를 承認하고 無産政黨에 對하야 好意的援助를 주어 그 成立을 促進할 것이라고 한다

二

無産政黨은 그 成立의 當初부터 左右兩翼의 抗爭이 잇서 事態가 極히 危殆하엿섯다가 겨우 結黨式을 보게되엿섯스나 畢竟 解散이 되고 그 再組織되려고 한에 當하여서도 議論이 百出하야 容易히 歸一되지아니할 形勢에 잇다 今月二三兩日間에 大阪에서 開會될 第二次無産政黨創立委員會에는 日本勞働總同盟이 絕對左翼排除를 條件으로 하고 參加하기를 承諾하엿다 한다 이와가티 하야 設或無産政黨이 다시 設立된다할지라도 全國的標語로 하던 大衆이 單一無産政黨을 主張하던 大同團結의 計劃이 挫折되고 보면 그것이 一般民衆의 全的信賴를 엇지 못할 것은 想像키 어렵지 아니한 바이다 이와가티 無産階級內의 不統一한 機會에 잇서서 中間階級을 包擁한 政黨을 組織한다 함은 時機를 어든 計劃됨을 不失할 것이니 적어도 一時的效果를 엇게 될 것은 우리가 想像할 수 잇는 바이다

三

英國의 自由黨이라던지 獨逸의 民主黨等이 지금 衰微의 狀態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은 누구가 屢次指摘한 바이다 그러나 英國의 自由黨은 일즉 그 燦爛한 過去를 가젓섯다 그러면 日本의 中間階級의 政黨도 그와가튼 將來를 가질 수 잇슬가? 中間階級의 政黨을 組織하려고 하는 人物들이 또한 無産政黨組織에 關係잇던 것을 생각하면 말은 中間階級의 政黨이라 하지마는 그 實質에 잇서서는 無産政黨과 區別하기 어렵고 만일 그러한 點을 차지려고 하면 議會主義에 關한 問題이겟다 그러나 無産政黨이 組織된다하더라도 現在에 잇서서는 大多數는 議會主義를 承認하고 나갈 터인즉 이 點으로 보더라도 無産政黨과 中間政黨과를 截然히 區別하기 어렵겟다 그럼으로 中間階級의 政黨이라는 것은 一時的中間現象에 지나지 못하고 그러니 그와가티 되면 事實上에 잇서서 議會主義를 信奉하는 無産政黨과 聯關의 地位를 取할 것은 直接行動을 主張하는 一派가 남어잇슬 뿐이겟다 그러나 中間階級의 政黨이 出現하게되면 無産政黨의 出現이 그에 制約되여 遲

하게될 것이오 大期의 總選擧에 一能히 旣成政黨에 對하야 一勁敵이 되게 臨하야 이 兩黨이 提携하게되면 一會成할 수 잇슬 것이다

『로』條約案可決
壓迫的多數로 佛國下院에서

(巴里二日發) 佛國下院은 七十一票對四百十三票의 多數로써 『로카르노』諸條約承認案을 可決하얏더라

獨逸黑色團公判
大逆罪로 最高裁判所에서

(나우엔二日發) 獨逸保守主義의 『쥐메』團員의 殺害事件을 敎唆한 罪로 審理中이든 秘密團體黑色國防軍將校等裁判은 大逆罪로 『라이프치히』最高裁判所에서 開廷하리라더라

海港『에』埠頭
東鐵返還에 對하야 露官憲間의 意見不一致

最近『하바로프스크』官憲은 一九二三年『오스트로-오푸』東鐵長官時代에 沒收한 海港『에게리시에피드』埠頭返還問題에 對하야 熱心研究中인데 該埠頭는 數年間無修理로 放任되여 잇든 關係上 諸施設의 破損이 甚하야 勞農官憲은 其對策에 腐心하는 터이나 財政困難으로 改築不可能의 狀態에 在하며 從하야 目下는 寧히 財政이 稍히 豐裕한 中東鐵道에 返還하야 改善과 發達을 期함이 有利하다고 思惟하는 듯한바 海港의 南方五十露里北部朝鮮淸津에 在한 大港灣築造案이 頻頻히 報道되여 海港의 大脅威가 되는 中樞東官憲이 此返還의 實行을 急速히 하는 一方 如斯한 意嚮에 對하야 烏鐵當局及海港港務局은 反對의 意見으로 目下莫斯科에 審議申請中인데 此에 對하야 朝鮮憲兵隊司令部에서는 淸津大港灣問題는 吉會鐵道竣成後가 아니면 海港의 脅威는 아니되며 一部『에게리시에피드』埠頭修築問題는 그리 重大問題가 아니라는 意見이 有한 것이더라

關稅案改正에 努力
◇……政府와 與黨의 奔走

(東京電) 日本政府는 三日正午에 院內에서 臨時閣議를 開하고 關稅改正問題에 對하야 協議한 結果 改正案의 各品目은 不可分的으로 一品目에라도 不成立이 되는 境遇에는 全體의 不成立을 來하야 重大結果를 招來할 것으로 米穀及鐵의 關稅가 政府案과 如하면 其他品目에 就하야는 政府는 어느 點外지는 讓步를 辭치 안켓다는 意味로 與黨委員及閣僚가 極力政本、新三派에 對하야 諒解를 求하기에 努力하기로 하엿는데 若本黨이 米穀關稅의 修正을 避치 안는 時는 可成政友會案과 別個의 修正을 爲치 안코 同一修正으로 列案의 成立에 故障이 無하도록 援繕키로 決定하엿다더라

床次濱口 會見은 延期
本黨議不定으로

(東京電) 關稅改正案에 關하야 諒解를 求코저 濱口藏相으로부터 床次本黨總裁에게 會見을 請하얏고 三日朝로 會見을 行할 豫定이더니 床次總裁는 三日이 되어도 黨議가 決定되지 안는 外닭에 其以前에 會見함은 無意일 뿐더러 且黨議를 無視하는 結果를 招致하겟슴으로 會見延期를 請하고 本黨은 三日午後代議士會를 열어 態度를 決한 結果 政務調査會의 決定을 承認하얏는데 卽農產物以外의 修正點은 總裁에게 一任키로 하고 三日夜或은 四日午前中濱口床次兩氏의 會見이 되리라더라

議員歲費增額案
三千圓을 六千圓에 引上運動

(東京電) 日本議會도 難關을 通過하야 昨今議院內는 春風駘蕩의 感이 잇는바 그 殘餘인 一千五百圓의 歲費를 밧는다 할지라도 現在歲費總額三千圓으로는 議員의 體面은 勿論이어니와 生活支障을 招致한다 하야 此를 六千圓에 增額하라는 議員歲費引上件을 惹起한 田淵氏의 運動이 奏效하야 意見이 一致될 듯한데 自己의 利益을 爲한 노릇이라 議院에 提出키도 慊然한 感이 不無함으로 各派가 面面相顧하며 政府提案으로 해주면 좃겟다고 思慮中인 一邊에 歲費가 僅少한 所致로 惡手段을 아니부릴 수 업다는 奇怪한 理論도 續出하고 또 어느 方面에서는 벌서 大藏當局에 交涉을 開始하얏다 하니 或은 議會가 終了할 際에 突然히 提案하야 滿場一致可決이 될는지 難測이라더라

海軍補助艦問題
海相要求에 貴族院承認

(東京電) 海軍補助艦問題에 關하야 財部海相은 三日貴族院各派交涉委員을 官邸에 招待하고 今年度海軍費의 承認에 對하야 諒解를 要求하얏는데 貴族院各派도 追及을 일삼지 안코 十六年度以降의 國防에 對하야 希望條件을 添附後承認할 意向이라더라

町田總務 首相藏相歷訪

(東京電) 憲政會의 町田總務는 三日午後院內에서 若槻首相과 濱口藏相을 會見하고 代議士會의 結果를 報告한 後 關稅案에 對하야는 重大한 局面의 展開를 보지 안코로

滿鐵社債發行
千五百萬圓

(東京電) 滿鐵會社는 十五年度事業資金으로 社債一千五百萬圓을 左의 條件으로 募集하게 되여 銀行團과의 交涉도 成立하고 政府의 認可도 어덧슴으로 十日에 發表할 터이라더라
一、發行額 一千五百萬圓
一、利率 年六分
一、保險期限 十二個年
一、發行價額 百圓에 對하야 九十三圓五十錢
一、締切期日 四月十五日

妥協解決을 圖하리라고 確信하나 萬若衆議院에서 大修正을 受한 에는 어느 外지든지 此에 同意를 表明치 안코 그대로 貴族院에 送附하야 其復活에 努力하야서 政府의 面目을 達成토록 하엿다더라

松島遊廓事件
日復日擴大

(大阪電) 松島事件은 益益擴大하야 豐國土地會社長立木政次郞을 召喚하야 關係者九名의 家宅을 搜索한 後 三日은 金錢을 授受한 嫌疑가 잇는 者十數名을 召喚取調하엿는데 七百八十萬圓이란 金額이 甲에게서 乙에게 乙에게서 丙에게 組織的으로 移轉키에 驚嘆的詐欺를 한듯 하며 그 犯人은 多數에 達할 모양인 듯 此에 對하야 政友會의 牧野良三氏가 大阪에 急行하야 調査를 開始하얏는바 一說에는 岩崎氏는 自己를 犧牲할지언정 此問題로 憲政會의 非行을 暴露시키지 안흐리라더라

張氏慰留電報
王氏辭任에 對하야

(奉天電) 王永江辭表提出에 對하야 張作霖氏는 二日夕에 長文의 慰留電報를 發하얏더라

光州勞働聯盟
◇二月廿八日創立

光州勞働共濟會에서는 新陣容을 整濟키 爲하야 各職業別組合을 組織한 後 光州勞働聯盟을 創立한다 함은 旣報한 바어니와 同聯盟創立總會를 去二月二十八日鄕校明倫堂에서 開하엿는데 定刻前부터 七個團體代議員二十三人과 各關係團體會員外지 大滿員이엇는데 規則通過와 任員選擧를 行한 後 全羅勞農聯盟代表金有聲 光州靑年聯盟代表與洪根 光州新女靑年代表崔烽 全南自働車運轉手同盟代表崔淳祐 其他各團體代表의 意味深長한 祝辭가 잇섯고 京城으로부터 朝鮮勞總、漢陽靑聯、新興靑年、女性同友會、京女靑과 멀리온 報寧無産靑年會、洪城衡平靑年、大邱井邑其他十六個團體의 祝文祝電을 朗讀한 後 萬歲三唱으로 閉會하엿다더라

◇綱領
一、階級意識을 促進하자
一、組織的團結을 圖하자
一、勞働全收穫을 獲得하자

◇執行委員
全龍基 姜仲鉉 金有聲 朴潤喜 金哲 崔英龍 鄭洪模 柳應烈 鄭基洪 金德賢

臨時大會 旣創立은 別項報道와 갓거니와 不得已한 關係로 繼續하야 臨時大會를 開催하고 臨時議長全龍基氏司會로 臨時書記金有聲氏의 點名及經過報告가 잇슨 後 準備委員側에서 議案을 上程한바 此를 長時間討議한 結果 左와 如한 決議가 有하엿다더라

◇討議事項
一、勞働團體促成의 件 一、當地勞働者狀況調査의 件 一、異流勞働團에 關한 件 一、勞働者敎養에 關한 件 一、勞働賃金及時間에 關한 件

◇其他問題
一、小作運動에 關한 件 一、靑年運動에 關한 件 一、衡平運動에 關한 件 一、反動勢力及妨害에 關한 件 一、木浦製油職工罷業에 關한 件 一、光州南信自働車運轉罷業에 關한 件

執行委員會 光州勞働聯盟에서는 去一日委員會를 開하고 左와 如히 各部를 定하엿다더라(光州)

◇部員
總務部 金哲 金龍基 金有聲 經理部金有聲 編輯部金哲 調査部鄭洪模 崔英龍 柳應烈 救護部金德賢 朴潤喜 姜仲鉉 鄭基洪 常務執行委員 金龍基 金有聲 朴潤喜 鄭洪模

龍岩浦音樂盛況

旣報 龍岩浦樂友會의 市民慰安音樂會는 去月二十六日當地天道敎堂에서 開催하엿든바 當日은 舊曆名節임으로 男女觀衆은 立錐의 餘地도 업시 滿場되엿으며 中崔世變氏司會下에 開幕되야 第一部音樂會는 趣味津津한 中에 普通學生의 『빈소』는 無限한 歡迎을 밧엇스며 第二部로 『三人學生의 節』이란 劇은 一時笑世界가 되얏섯다더라(龍岩浦)

四面長에 警告
洪原靑聯에서

咸南洪原郡 洪原靑年總聯盟에서는 每日申報를 州翼 景浦 龍雲 南靑 四面에서 各里區長에게 强制配付하고 其代金을 人民에게 負擔케 하는 事實을 미리부터 調査하얏는바 去三月二日東亞日報支局內에서 常務委員會를 開하고 警告文을 作成하야 四面長에게 發送하엿다더라(洪原)

長連記者團創立
綱領은 言論權威伸張

去月二十七日本社長連支局內에서 開催된 長連記者團創立總會에서는 臨時議長白俊烈氏司會로 白相淳氏의 開會辭를 비롯하야 綱領規約을 逐條通過한 後 本社長連支局記者金炳玉對東部里崔鮮玫의 事件에 對하야 長時間討議한 後 그 事件의 眞相을 調査하기 爲하야 調査委員으로 金一泳 金璜基 白俊烈 白相淳 四氏와 同側執行委員五人을 選定한 後 閉會하엿는데 被選된 執行委員과 綱領은 如左하더라(長連)

◇綱領
一、우리는 協同과 親睦을 鞏固히 하야 言論權威의 伸張을 期함

◇執行委員
金炳玉(朝鮮)金一泳(東亞)金璜基(朝鮮)元春道(朝鮮)崔泰煥(東亞)

長連靑年懇談

黃海道長連靑年會에서는 二月二十七日當地公會堂에서 新春懇親會를 開催하고 白相淳氏司會下에 諸般事項을 討議한 後 會員諸氏의 意味기픈 新春感想談이 잇섯스며 餘興으로 競技가 잇섯는바 一等은 元寅淑君 二等安成約君 三等吳基善君等이라고(長連)

新灣靑年定總
民衆圖書室設置決議

新灣州 新灣靑年會에서는 三月一日第七回定期總會를 當地梅枝町檢頭組合에서 開催하고 議長朴殷赫氏司會下에 左記事項을 決議하얏더라

◇決議
一、新入會員承認의 件 二、民衆圖書室設置의 件

◇新任執行委員
金得麟 田得鉉 白孫龜(重) 朴殷赫 梁柱翰 (新灣州)

讀者慰安講演
六日新上에서

本社新上支局에서는 去年八月付로 幹部가 粹換任되엿스나 從來愛讀者諸位에 對하야 萬分之一이라도 好意를 報上치 못함을 遺憾히 하야 今番舊正月新春을 利用하야 左와 如히 講演會를 開催하고 愛讀者諸位는 勿論一般社會人士의 傍聽도 歡迎한다 하며 歌劇도 잇다는데 場所는 如左하다더라

◇時處 時日은 三月六日午後七時半 ▲場所는 新上驛前新下里禮拜堂 ▲入場은 無料 ▲演題는 隨意 ▲演士는 權明瀚 嬢楊泰郁 金仁瑞(新上)

啄木鳥
投稿歡迎 十四字五十行以內 住所氏名明記

被害者의 覺悟

◇所謂法律이라는 것은 엇더한 것이냐 生命財産을 保護하며 安寧秩序를 保持하기 爲하야 사람의 손으로 세워노흔 것이다 또는 法律은 犯罪者를 處罰하는 同時에 無罪者를 極力保護하는 것이 그의 絕對的使命이다

◇그리하야 警官이나 司法官은 法律에 依한 使徒가 되여 이 法律을 지키고 그것이 부리는 데 此를 執行하기 爲하야 制定한 게 法이다 그럼으로 人權을 蹂躪하며 所有를 侵害하며 安寧秩序를 어지럽히는 事實이 發生하는 時에는 具體的事實에 照하야 法律을 適用함에 忠實하여야 하겟고 爲者警官이나 司法官된 者로서 法律의 制限을 越하야 職權을 濫用하거나 又는 違法行爲가 잇는 時는 此는 普通人民에 對한 그것 以上으로 制裁를 加함이 當然하다

◇그런데 朝鮮의 警官은 漠然한 嫌疑로써 無事한 人民의 自由를 無理束縛하며 又는 所謂犯罪事實을 自白식히기 爲하야 無理한 拷問으로써 自白을 强要하는 것은 우리가 한두번 보는 일이 아니다

◇그뿐아니라 甚한 者는 重傷을 致하야 絕命에 至케 까지 하는 事가 잇스니 그의 實例로는 우리가 往往新聞紙上에 發表되는 것만으로 所謂朝鮮警察에서 公然히 行하는 中拷問의 程度가 얼마나 甚하며 非人道的인 것을 知할 에 足하다

◇그러면 이와가튼 事實을 그대로 默過할 것이냐? 그네의 監督官된 者 - 法律의 命하는 바에 依하야 處罰或은 懲戒를 加하도록 注意를 促할 것은 勿論이지마는 그보다 나는 被害者各自가 正當한 權利를 主張하지 안흐면 안되겟다 함이다

◇勿論被害者가 그의 權利를 主張함에는 여러가지 拘碍가 만치 안흔 것은 아니다 卽地方民으로서 그곳 官憲의 感情을 致하면 後患이 잇슬 것을 두려워하는 等이다 然이나 그러타 해서 何時外지 此를 默認함은 더욱 惡吏의 惡習을 助長할 뿐이니 모름직이 被害者의 斷然한 覺悟가 잇기를 바란다(金榮奎)

井邑新春音樂
學生의 聯絡親睦으로

全北井邑邑內井邑靑年會에서는 同會夜學生과 同邑公普生徒間의 快樂과 聯絡親睦을 爲하야 去月二十七日同地秋山劇場內에다 新春音樂大會를 開催하엿는데 定刻前부터 雲集하는 觀衆으로 立錐의 餘地가 無하엿고 同會委員長鄭泰浩氏의 司會下에 同會夜學生男女와 公普生徒一年級으로 六學年生外지 男女가 各各 그 技能을 發揮하야 滿場의 大喝采로 井邑初有의 盛況을 呈하엿다 하며 同會委員長鄭泰浩氏의 特別寄贈의 茶菓로 長時間相互의 聯絡한 情誼를 暢叙하엿다더라(井邑)

光陽勞働定總
重要事項討議

全南光陽郡勞働會에서는 二月二十七日光陽靑年會館內에서 第四回定期總會를 開催하고 多數會員이 雲集한 中에 金完根氏의 開會辭가 잇슨 後 會順을 따라 宣言綱領及規約改正案과 豫算案을 原案대로 通過한 後 左와 如히 役員을 選擧하고 諸般事項을 決議한 後 萬歲三唱으로 閉會하엿다더라

◇役員
委員長辛命俊 中央委員 禹化燮 白桂奉、白寅鶴、朴奕、金錫溶 金錄、羅基彥、朴春三

◇決議
一、勞働時間 一、勞働賃金 一、衡平運動 一、靑年運動 一、女性運動 一、互相親睦等에 關한 件

中央委員會
光陽勞働

光陽勞働會第一回中央委員會를 開催하고 다음과 가티 執行委員을 選擧하엿더라

光陽靑聯 中央委員會

全南光陽靑年聯盟에서는 去二十五日光陽靑年會館內에서 中央委員會를 開催하고 左와 如히 決議하얏다더라(光陽)
一、規約修正에 關한 件(規約修正委員을 選擧하야 準備케 함)
一、總會召集에 關한 件(總會日은 三月十七日로 決定함)
一、細胞團體狀況調査及未加盟團體勸誘에 關한 件(臨時調査員을 選擧하야 事務를 執行케 함)
一、全南道聯盟發起에 關한 件 本聯盟總會에 通過식힌 後 發起하기로 함

光靑中央委員會

全南光陽靑年會에서는 去月二十五日本社支局에서 中央委員會를 開催하고 三月七日總會召集할 것과 其他俱樂部敎養事業에 關한 諸般問題를 討議하엿다더라(光陽)

◇委員
常務執行委員金餘 組織宣傳部朴奕 爭議部辛命俊 敎養部金錫溶 調査救護部羅基彥(光陽)

南鮮雄辯
極盛况된 二日預定을 一日에擧行

全南順天에 잇는 東亞、時代와 本社三支局主催와 順天靑年會女子靑年會勞働靑年會基督靑年會後援으로 南鮮男女少靑年組合懸賞雄辯大會를 開催한다 함은 旣報어니와 豫定과 如히 去月二十七日順天勞働學院大講堂에서 李昌洙氏의 司會下에 開催된바 雲集한 男女聽衆은 場內外에 立錐의 餘地가 업섯스며 同會로부터 本大會는 二十七八兩日間으로 豫定하엿섯스나 여러가지 形便으로 遺憾이나 엇수업시 今二十七日로 始終하게 되엇다는 宣言이 잇섯고 梅山學校少女六人의 合唱이 잇슨 後 滿場拍手裏에 順次登壇하는 少靑年男女演士의 流暢하고 熱烈한 獅子吼는 聽衆의 喝采가 不絕하얏는데 朴永羲 崔淳鎬兩氏의 公正한 左記審判報告가 잇섯고 同十二時大盛況裡에 閉會하엿다더라(順天)

◇少年部
等級	演題	演士
一等	지	黃圳秀君
二等	玉川橋	黃聖禮孃
三等	無窮花	吳瑞利亞孃

◇靑年部
等級	演題	演士
一等	愛의바	金永贊君
二等	修養	郭龍德君
三等	成功과 失敗	宋南容君

蔚山索戰
全市를 喧鬧한 萬餘群衆이 兩日間捷勝

蔚山邑內에서 舊曆正月十五六兩日間 索戰大會를 開催한다 함은 旣報한 바어니와 東西兩便의 便長과 委員들의 極力活動으로 空前의 큰 『줄』을 만들어 長蛇陣을 버려는바 所聞이 廣布되여 三四十里外에서 出職과 求景코저 參集한 者도 多하야 數萬의 群衆이 會集하얏는데 兩陣의 旗鼓와 會衆의 喊聲은 全市街를 搖動케 하엿는데 初日은 東便이 得勝한 後 日西便이 勝捷하엿다 하며 各種餘興과 農樂으로 破陣樂을 奏하얏다더라(蔚山)

各樣各色의 公普學藝盛况

甘谷 公立普通學校에서는 二月二十七日同校講堂에서 第一回學藝會를 開催한바 男女觀衆이 人山人海를 이루엇다고(長湖院)

驪州 公立普通學校에서는 二月二十七日同校敎室에서 母姉會를 열고 學藝會外지 열엇섯는데 男女生徒들의 活潑한 體操와 意味기픈 學藝로 大盛況을 이루엇다고(驪州)

開慶 郡山北公立普通學校에서는 二月二十七日同校學藝會를 開催하얏다는바 天眞爛漫한 어린이의 學生黃仁玉의 開會辭와 該校夜學生中張哲甫禮鳳俱 두 어린이의 問題로 熱辯을 토하야 一般의 興味를 끌엇다더라

金海 公立普通學校에서는 二月二十五日同校에서 學藝會를 開催하엿다는데 三千餘名의 觀衆이 雲集하엿스며 大盛況을 이루엇다고(金海)

淸谷 公立普通學校에서는 二月二十八日同校講堂에서 學藝會를 開催하야 大盛況을 이루엇다고(淸谷)

醴泉 公立普通學校에서는 二月二十七八兩日間同校에서 學藝會를 開催하엿는데 男女觀衆이 千餘名에 達하엿다고(醴泉)

永川 公普에서는 二月二十七日學藝會를 開催하얏는데 學父兄이 多數參席하야 少年少女學生들의 天眞스러운 態度로 遊戲와 談話에 매우 滋味잇섯다고(永川)

尙州 公普에서는 二月二十八日兩日間同校大講堂에서 學藝會를 開催하엿는데 全校生徒의 習字等學藝品을 陳列하엿스며 여러 學生들의 唱歌와 童話는 매우 興味가 잇서 兩日共히 聽衆이 千名에 達하엿다고(尙州)

大邱 公立女子普通學校에서는 二月二十七日同校講堂에서 生徒의 手製品과 其外여러가지의 遊戲等의 學藝會를 開催하엿다고(大邱)

金浦 公立普通學校에서는 二月二十八日부터 二日間同校內에서 學藝品을 一般에게 觀覽식히기 爲하야 二十八日에는 男子만 觀覽케 하고 三月一日은 一般家庭婦人에게 觀覽케 하야 매우 盛況이엇다고(金浦)

長城 郡黃龍面月坪公普校에서는 去二十日同校古賀校長의 開會辭로 二十五種의 學藝로 無慮五百餘名의 學父兄과 來賓에게 無限한 興味를 與하고 木浦靑年會員 朴 田의 演説의 『하무니가』와 同田의 獨唱의 淸雅한 音調로 會衆이 拍手再請하얏고 寄宿增築準備의 閉會辭로 閉會(長城)

玉橋農友定總

蔚山郡蔚山邑玉橋洞農民靑年으로 組織된 玉橋農友會에서는 去一日同事務所에서 第三回定期總會를 開催하고 議長金小童氏司會로 經過報告會計報告任員選擧新事業에 討議가 잇섯다더라

研究會員所感等이 잇슨 後 閉會하고 餘興으로 滿足을 다한 後 散會하엿는데 新任幹部와 新事業은 如左하다더라

◇幹部
會長李元補 總務朴周祚 會計具命得 夜學監尹昌伊 常議員崔作支 金成出 朴迺 金武俊 尹泳俊

◇決議
一、經營이 不充分하던 勞働夜學은 本會에서 그 經營을 鮮明히 할 일
二、昨年度植木地에 繼續植木할 일

乾明太는 總히 元山에 運入販賣
客主總會에서 決議

關北各津에서 產出하는 明太魚를 元山의 名産이라 하야 全朝鮮에서 唯一한 食料品으로 아니 먹지 못하던 그것도 咸鏡線의 開通으로 因하야 元山의 集中을 떠나 產地인 그곳에서 直接輸送함으로 元山의 閑散은 勿論이오 此商去來에도 支障이 만흔 이 생김으로 此를 遺憾으로 생각한 元山客主組合에서는 二月二十八日臨時總會를 開催하고 滿場一致로 左의 決議를 行하엿다는데 一般商界에서 興味잇게 企待한다더라

◇決議案 元山의 繁榮을 圖하며 同業者의 共同利益을 增進하기 爲하야 本組合員이 產地에서 貿易及委托을 不拘하고 買入하는 乾明太는 總히 元山에 運來하야 販賣할 事로 함(元山)

元基少年創立

慶北永川郡琴湖面元基洞에서는 去月二十八日少年會를 創立하얏다는데 被選된 委員은 如左하다더라

◇委員
李七龍 曹圭栢 曹圭馴(永川)

退潮素劇盛況

咸南退潮에서는 少年會主催와 養勇團及本社支局後援으로 去上元에 素人劇을 興行하엿다는데 定刻前부터 雲集한 觀客은 人山人海를 일우엇스며 同情한 人士와 金額은 如左하다고
乙丑團五十錢 金鳳徽三圓 魯時伯一圓 韓秀九五十錢 李準龍一圓

會館建築과 實業校設置
固靑委員決議

慶南固城靑年委員會에서는 去二月二十八日時代日報固城支局에서 臨時執行委員會를 開하고 問題되여 오든 會館建築費에 對하야 長時間討議가 有한 後 이어서 實業補習學校設置運動을 始作하기로 決定하고 實行委員을 左와 如히 選擧하엿더라

◇實行委員
金鍾注 千性洛 金白世 申秉珍 黃承龍 黃龍度 千斗上 崔尙祚 全甲孝 具鍾根(固城)

◇決議事項
一、消費節約의 件(婚喪時金錢授受等全廢와 其他의 制限)
一、風紀監理의 件

一革靑年總會

襄陽郡一革靑年會에서는 去二月二十八日第一回總會를 本社襄陽支局內에서 開催하고 金弼氏司會下에 左記事項을 決議하엿다더라

◇決議
一、規約通過 一、執行委員選定
一、本里極貧民救濟에 關한 件
一、春期農業勞働賃金에 關한 件

南塘勞農定總
會名을 變更하고 農民運動에 全力

咸南洪原郡州翼面南塘勞農會에서는 二月廿六日第一回定期總會를 開하고 左記事項을 決議한 後 任員選擧와 決議事項은 如左하다더라(洪原)

◇新任任員
庶務部黃珍楠 都致洙 都相禹 敎養部都錫運 崔浩鳳 調査部秦禹燮 崔興鋼

◇決議
一、會名을 農民동무會로 變更하야 農民運動에 全力하기로 함
一、婦女讀書會에 關한 件

苗浦中華同樂會 全北

苗浦港에 居住하는 中華人一同은 今番陰正月十五日을 機會하야 不少한 資金을 投하야 『陸上花船』의 實劇을 四五處로 巡演하는 同時 滿城人士의 氣分을 集中하야 三日間興行하엿다더라(苗浦)

大浦公普學藝會 江原

江原道襄陽郡道川面大浦里公立普通學校에서는 去月十九日부터 二日間學藝會를 開하얏는데 學藝品은 昨年보다 倍勝하야 學父兄과 一般觀衆은 無限한 欣感을 得하얏스며 第二日 『獅子와 山鼠』라는 題로 第五學年生金五星君의 雄辯과 『世態』라는 題로 第一學年生金文起와 張順珠의 談話는 料外의 喝采를 博하얏스며 學藝의 閉會를 期하야 學父兄會及後援會를 開하고 本面長金雨圭氏는 普校後援會長으로 任하야 敎育의 將來와 五六學年에 對한 說明이 잇섯다더라(襄陽)

◇論山音樂大會盛況 忠南論山郡勞働夜學校主催로 二月二十五日當地禮拜堂에서 音樂大會가 잇섯든바 大盛況을 일우엇스며 有志諸氏의 同情金도 多數하엿다고(江景)

◇模範會員表彰 長湖院새사람少年會에서는 去月二十七日同會館內에서 模範會員施賞式을 擧行하엿다는데 受賞者는 林奇賓 李漢中 李相德 尹普鉉 金仁培 尹花彰 洪淳玉 諸氏라고(長湖院)

平壤各校卒業

平壤府內에 잇는 各官私立學校의 卒業式日程과 場所는 左와 如하더라
▲崇實專門學校 三月十八日午前十時同校講堂
▲光成高普校 三月十日午前十時南山峴禮拜堂
▲平壤高普校 三月八日午前十時平壤公會堂
▲崇仁學校 三月九日午前十時同校講堂
▲崇德學校 三月十八日午前十時章臺峴禮拜堂
▲平壤女普校 三月二十五日午前十時同校講堂
▲崇義女學校 三月十八日午前十一時同校講堂
▲正義女高普校 三月十九日午前十時南山峴禮拜堂
▲聖母女學校 三月二十五日午前十時同校講堂
▲崇賢女學校 三月二十日午前十一時西門外禮拜堂
▲光成普通學校 三月二十三日午前十時南山峴禮拜堂
▲平壤中學校 三月六日午前十時同校講堂
▲正進女學校 三月十八日午後二時南山峴禮拜堂
▲鍾路公普校、三月二十四日午前十一時同校講堂
▲上需公普校 三月二十五日午前十一時同校講堂
▲箕明學校 三月二十五日午前十時同校講堂
▲高等女學校 三月二十五日本校講堂
▲京城女子師範平壤分校師範學校、明倫女子公普、南山女子公普、若松公普(時日未定)

◇寸鐵◇

【長連】요사이는 遷新正이라고 色酒家와 賭博場은 殆히 盛況이다! 거리거리 술집마다 싸홈박이 한칠사이 업고! 엇던 집內室에서는 하로밤에 數百圓得失의 大賭博場이 連日繼續中이라고! 新正之初特色이여 이것인가

【新高山】新高山에는 요지간 酒店에 가지 『술잔』니 『푸론』니 하는 말이 流行한다 엇저든 流行는 別問題이지마는 意議有無만은 普及

【平壤】平壤에서도 電料引下問題로 府民이 蹶起하야 運動을 하는 中에 또 電車衝突로 乘客의 重輕傷者를 내이고 發하야 動力停電等事故가 續出한다 그것이 運動制止策?

龍岩浦商總
當地幼稚園에서

龍岩浦商務會에서는 二月二十七日當地幼稚園에서 第四回總會를 會集하야 會長黃醍洞氏로부터 經過報告와 其一般事項을 討議하고 昨年度經過報告가 잇슨 後 任員을 改選한 後 官民有志와 各新聞記者를 請하야 懇談會를 開催하고 龍岩浦發展策을 講究한 後 大盛況裡에 閉會하엿다는바 當日被選된 任員은 左하다고

◇任員
會長黃醍洞 副會長高志鉉 理事姜明奎 金基洙 監査黃濟河 金成鎬 評議員李錫泳 李元秉 金丙浩 金鍵泥 金西澤 徐丙權 李彰 張世健 顧問張央實

罷工組에 慰勞文發送
元山木浦

全北井邑市內校工同盟會에서는 元山과 木浦兩處의 罷工職工의 苦鬪에 同感하야 多少의 同情金을 送附하라고 收合하는 同時에 慰勞文을 發送하엿다더라(井邑)

尙州勞靑臨總

尙州勞働靑年會에서는 去一日同會館內에서 臨時總會를 開催하엿는데 會集한 會員이 二十餘人에 達하엿스며 그 決議事項은 如左하다더라

◇決議
一、索戰大會의 關한 件(細目畧)
一、會館移轉의 關한 件

◇索戰大會準備委員
東部 全邁 金鑫 李寅煥 崔徧植 具資荊 西部 金達根 申相龍 金錫根 金相培 李圭漢

燕武禁酒定總 義州

松長面燕武洞禁酒會에서는 第六回定期總會를 去月二十七日當地樂三書堂에서 會長黃泳吉氏司會下에 開催하야 各部의 報告와 其他決議事項이 有한 後 下午八時에 閉會하엿는데 同殖產部의 報告에 依하면 貯金總額一千九百七十圓四十四錢이오 貯金人員數百十八名이라는데 그 貯金은 全혀 會員에게 低利로 信用貸付할 터으로 一般農民들은 同會에 對하야 好評이 籍籍하다더라(義州)

鬱陵島視察團

申請期日 三月二十五日外지
申請場所 朝鮮日報社蔚珍支局
募集人員 五十名以內
加入金 拾圓(船費、食費는 主催側負擔)
規定 四月七日午後五時蔚珍竹邊港에 登船、八日道洞港에 下陸、其後五日間鬱陵島各勝古蹟求景 同十四日道洞港登船 十五日竹邊港下陸解散
主催 本社蔚珍支局

嶺東記者大會

開催日時 四月一日午前十二時부터同二日外지
開催場所 蔚珍靑年會館
申請期限 三月二十五日外지
申請場所 朝鮮日報社蔚珍支局 但出席치못할境遇면申込만도可홈
加入金 壹圓
但嶺東各地에關係오니嶺東區內各新聞雜誌支局記者는通知가未及되엿슬지라도參加與否를곳通知하시옵
主催 嶺東記者團

The Korea Daily News.

Seoul, Korea, Thursday, Mar. 4th, 1926.

London Printing School Year Book

II

It runs to this effect: "The School stands for printing as it is understood in practical commercial undertakings; and it is interesting to hear those who have visited other educational institutions affirm that the London School of Printing embodies a distidctive spirit of activity and interest in the work in hand which, it is claimed, is the secret of its success." To all this we should not hesitate to assent, with the one reservation that the "secret," if any, is a very open one; the spirit and the success being to each other as the reactions of cause and consequence.

London printers have good reason to be proud of their fine school, not merely as a local institution, but as a national asset, solving an important factor in the industrial problem. At home it has heightened the standard of quality of British printing, and everywhere it has raised the prestige of British craftsmen. We are very serious in suggesting that when at length the School is closely affiliated to London University, its principal should be at once awarded a degree honoris causa, if not by London, then by some other university, in recognition of his really splendid services to technical education in printing, the Craft which has yielded most effective service to education in the largest sense.

The Year Book has a value additional to that accruing from the all-round excellence of its specimens of printing. Supplementary to these there is a useful collection of essays relating more or less directly to the graphic arts, or, in some instances, to the even more difficult and complex art and mystery of living. It was certainly a happy thought to collect these informative essays for preservation in a more permanent form than that in which they first appeared. And they provided the students with excellent copy.

倫敦印刷學校年鑑 (完)

◇寫眞(오른편으로부터) 세자뎐하, 비뎐하, 덕혜옹주, 리강공뎐하

多數官民奉迎裡에 京城驛에 御安着

엄중한경계와혼잡한군중 즉시락선재로들어가시어

왕세자뎐하(王世子殿下) 동비뎐하(同妃殿下) 덕혜옹주(德惠翁主)께서는석간긔보한바와가티 삼일오후일곱시, 경성에도착하셧는데 역전에는 각관뎌고등관이상의 관리와 밋각신문사장 민간유지가다수천명의 봉영리에 안녕히도착하셧다 역전으로부터 종로네거리까지 련하야서 미리경계를준비하고 잇든 수백경관은뎐하에서 도착하시자 안등긔도경찰부장(安藤京畿道警察部長)의지휘와 시내각서장의감독으로 경계가 매우엄중하엿고 역전광장에는 봉영하는수천군중과사오십채의자동차도입추의여디가업시다소혼잡을이루엇스나 출동한긔마경관대(騎馬警官隊)의 엄중한경계로뎐하의일행은 권귀 봉영나왓든 관민유지를접견하신후 즉시자동차를 탑승하시고 창덕궁락선재(樂善齋)로 향하셧는데때는일곱시삼십분경이엇다

慶北知事 土產을獻上

박사무관을통하야

왕세자뎐하(王世子殿下)의일행이김천(金泉)을통과하옵실때에 김천군수(金泉郡守)로부터택뎐경북지사(澤田慶北知事)를경유하야 뎐하에 다음과가튼헌상품(獻上品)을 박사무관(朴事務官)을통하야헌상하엿더라

改良新聞紙 五枚
鷄卵五十個 金泉郡廳早神力米一斗

行啓日程

왕세자뎐하(王世子殿下)의일행은 오일동안경성에 톄재하옵신후팔일에 경성을 떠나실예뎡이라는데 톄재하옵시는중에 왕세자뎐하와 동비뎐하의 행계하실일뎡은다음과갓더라

▲三日午後七時京城驛御着樂善齋御留署
▲四時午前十一時宗廟、璿源殿、德安宮、朝鮮神宮御參拜午後寬勳洞李堈公殿下御對面
▲五日午後一時洪陵、永徽園參拜、故李晉殿下墓所臨御
▲六日午前十一時裕陵參拜午後四時부터仁政殿西行閣에서御親戚及勅任官、各國領事에게茶菓下賜
▲七日 御休養
▲八日 御出發

春睡朦朧한工夫 御用車에轢傷

손목이불어져서 일시는대혼잡해

왕세자뎐하(王世子殿下)의일행이 탑승하신 특별긔행렬차는 삼일오후 네시오십분경에 조치원(鳥致院)전의(全義)사이에서 불연히 덕거를하며 승무원과밋 승객이 하차하야 약삼사분간이나 일대혼잡을이루엇는데 그원인은 보행자의왕래가 빈빈한선로에서 흰긔(白旗)로 신호(信號)를하야 긔관수의사고유무를알려주든 공부(工夫)가 따뜻한봄날에 취하야 긔차가 도착하는시간이 갓가운줄도모르고 선로우에서 잠이들엇다가 별안간 긔차가 닥치는통에 몸을빼야처다가 바른손을 긔관차에부듸쳐서 손목이부러지는통에 그와가티 돌연덕거를한것인데 뎐하께서 탑승하신긔차에 사람이치어죽엇다고 일시는 매우혼잡을이루엇더라

大同江解氷

평양(平壤)에는수일이래로긔후가 점점 온화하야지더니 지난일일밤부터대동강(大同江)의 얼음이 풀리기시작하야 련광뎡(練光亭)압에는물은물결이 잘잘흐르기 시작하얏스며 상류와 하류에는 얼음이 얇어져서 통행이심히 위험하더라

索戰大會問題 安東郡守被訴

대성황리에광장하다가 『고』의고장이생긴까닭

지난달 이십팔일 오후세시에경상북도안동(慶北安東)군내의시민들의 주최와본사안동지국(本社安東支局)의후원으로 전안동색전대회(全安東索戰大會)를동군읍내면 동부동에서 개최하엿는데 사방으로부터 몰려드는군중은뎡각도 되기전에 무려수만에달하야 실로공전의 대성황을이루엇스며 동서량군의 긔빨과련디를옹지길만한군중의함성은뎡각에 이르러 시작의방포가나매 참나를기다리든 수만의군중은신이여분동안이나 전력을다하야승리를 도모하엿스나 호말의변동도 업더니 돌여히『고』(량편의줄을 련속하는데쓰는나무)가 버러져서승부를 다투지못하엿스니원래『고』에서고장이

생길때는 동군(東軍)의책임으로 결국서군의 승리라는관계상 그와가튼 긔회를어든서군은 개선가를 부를지음에돌연석전(石戰)이 일어나서 한참동안은 일대수라장을 이루고사오인의 경상자까지 내인후서군의간부는 심판부에이르러서 우승긔를 요구하엿스나 심판장인

안동군수 리윤영(李胤榮)씨와동군속심판원들은어느틈에 혁적을감추엇슴으로 일반의 군중은 헤여지지도안코동서량군이 서로 독승하엿다는의미로 제각금 군악을 선두로수만군중은 시가를도라다니면서 량군이 충돌되여 일대권투가이러나서시가는

일종전디의상태를이루어각상뎜은모다뎡지하엿다더라

西軍側은提訴

심판장을걸어서

그와가티 그색전대회는 완전한승부를엇지못하엿슴으로승부의심판은 그의일에 안동군령에서 심판부원들이 모혀서 판결을하기로하고 일반심판원들은 일반오전아홉시에 군령군수실에 회집하야 장시간을두고 협의하엿스나 량편의의견이 합의치못하야 간혹언쟁까지잇섯고 결국에는 승부를판결치못하고 헤여젓스며 이에서군측에서는 하는수업시 대구디방법원 안동지청에심판장 리윤영씨를 상대로우승긔청구소송을데긔하엿다더라(안동)

埋築工事中 人夫慘死

언덕이문허져서

경남거제도장승포(慶南巨濟島長承浦)에서는 지난달이십오일오전열시쯤되여 해면매축공사(海面埋築工事)를하던중인부한사람이 참혹히죽엇다는데 그자세한내용을 드른즉 그날여러인부가 바다를메우기위하야 그근처일본사람 태뎐룡태랑(太田龍太郞)의집뒤ㅅ산을파던중 뜻밧게언덕이 문허저서 그와가티죽은것이라하며그죽은사람은 동부면다대리(同島東部面多大里)에사는 량문이(梁文伊)라더라(거제)

火田民問題로 官民間에衝突

당국자의하는일이괴이

평남일대(平南一帶)에흐터저잇는 화뎐민(火田民)들은 화입금지령(火入禁止令)의결과로말미아마 농토(農土)를 일케되야공포중에 잇다함은 루보한바이어니와 그문데로인하야 관민 간에크게 투쟁한 사실이 잇다 순천군수(順川郡守)가 시대일보긔자(時代日報記者) 홍진근(洪鎭瑾)씨에게말하기를삼십도까지는화뎐을경작하되그이상은

못하다고 명언하엿는데 그당시 동아일보긔자(東亞日報記者)이든 박련양(朴連陽)군이 동군봉명면장(同郡鳳鳴面長)김징텰(金澂哲)씨를 방문하야 화뎐민문데를 토론한바 봉명면장이하는말이 정말 금지가아니라 근자에군령으로부터 비밀공문(秘密公文)이왓는데그내용은국유디(國有地)일뎡보(一町步)에십원가량이면 사게하라고 하엿다하면서

신문에는 내지말어달라고 말함으로 긔자는당국의태도가 넘우도이상하야 당디국유주요디(主要地)인 렬막(烈幕) 수안(水安)등디에 출장하야 됴사한즉 발서 그곳구장(區長)이 면에서 하란다고 일반인민에게 다알게하얏슴으로 이가티 중대문데를 묵언히 볼수업스며 하야 군에서 언명한바가 잇는터인데 이제와서 돌변하야개인에게 매수권고(買收勸告)를 함으로 당국의취하는 태도가하도 괴이하야그당시

동아일보 에이사실을게재하엿든바 그후면장이 그긔사로부터 관령의비밀사건을 긔자에게말하엿다고 만흔징계를 밧고나서는 자긔의 잘못을깨허생각치안코 태연하게 전긔박긔자의부친에게 향하야말하기를 자긔의면이나 자긔의디방의 검덥을 신문에 게재하니 달은직업을하게하고 신문긔자를 그만두라고 하엿슴으로 더욱금후의 태도를 주시중이라더라(개천)

鐵窓의餘毒으로 命을마친金章錫氏

일반동지의장엄한회장으로 삼월이일에장식을마치엇다

덕원군현면두남리김장석(德源郡縣面斗南里金章錫)씨는 어려서부터 동리글방에서 진중한태도가 잇다하야 만흔사랑을 바더왓섯다 성년(成年)이 된후 한문공부를 하다가 신교육령이 발표됨을따라 서북협성학교(西北協成學校)를 졸업하고 집에 도라와서 그동리학교에서교편을잡은일이잇고 해삼위(海蔘威)등디에서상업을경영한일도잇섯다가 마츰 긔미년삼일운동이 전국뎍으로 일어낫슬때에 김씨는 당년

삼월일일 에동지리가순(李可順)씨등 십구인으로 함께 적막하든 원산텬디(元山天地)를뒤집어노핫다 이일로 말미암어 그후 텰창생활(鐵窓生活)을일개년반이나하고 나온후또다시 경신년구월이십삼일에 미국의원단(米國議員團)이우리나라에 시찰옴을긔회삼아 동지김상익(金相翼)씨등십수인이원산텬디에

만세소리 로세례(洗禮)를주고 역시동지와 함께텰창에서 이개년이라는 긴세월을 지내엿섯다 그리하야출옥(出獄)한이후는항상몸이불건하야셰칠궁항으로할수업시재작년에는 한팔(一臂)을 병원에서버히기까지하엿스나 종내 완인이되지못하고 더욱날이갈수록 병에병을더하야이월이십칠일에

구세병원(救世病院)에서 한만흔 이세상을 영원히 떠낫는데 씨에게노잣김이만흔 진난 삼월일일에 장사를 지나려하엿스나 사정이허락지안흠으로 이일오전 열시에두사히 출상(出喪)하게되야 동지와 고구등 수백사람의 호상으로 원전다인 두남리묘디에 안장하얏스며씨의 유족은 부인과 열네살먹은 아들한아이잇서 현금광명학교(光明學院)오학년에 출학중 이나가세가극빈하야조볼려서의형편이라더라(원산)

新正을機會로 密造酒者大檢擧

五面에五十二人의多數 벌금총액이일천사백여원

빈부를 물론하고 술을자유로비저서 관혼상제(冠婚喪祭)에나세시복납(歲時伏臘)의명절에나 갑업고 맛잇는 술을서로난호어먹든 세상은 벌서멀리가고주세령(酒稅令)이 시행됨에딸하 가난한 집에서는 젊어로 술을비저 먹을수업게 되얏나 그러나 순실하고 어리석은시골농가에서는 설명절을 당하면 돈이업스니 사먹을수는업고 잇는쌀 잇는누룩으로 술되나비저서 차례도지내고 친척이 난호어먹기도 하는관습이 아즉도남아잇섯다 음력명절을 긔회로주류무면허밀조자(酒類無免許密造者)를 취톄하기 위하야 지난음력세모에 전남보성(寶城)군에서는 도속 군속 면서긔(道屬郡屬面書記)합 여덜사람의 한예가 불의에출동하야복내、율어、득량、회천、웅치(福內栗於得粮會泉熊峙)다섯면에서는오십이인의 밀조자를 검거하야매명이삼원내지이십오원의 상의처벌을하엿는바그벌금총액이일천사백여원에달하엿다더라(보성)

電車、汽車正面衝突 重輕傷十一名

뎐차는부서지고승객중상

삼일오후 아홉시오십사분경 대판부하천남군(大阪府下泉南郡)우계역(ウケ驛)에서 뎡차중인화가산(和歌山)발팔백이십사호렬차를 화가산발 이십륙호화물렬차가 후면으로 충돌하야 뎐차를파괴하얏는데 중상자 오명과 경상자륙명을 내히엿스며마츰만원이엿슴으로 일시는 대혼잡을이루웟다더라(대판뎐)

◇昨日本社를見學한中東學校生◇

薄命한山玉 玩弄物로玩弄物에

당시곡마단중의텬재가 다시술주정군의놀림감

요사이 충남연기군조치원(燕岐郡鳥致院)은 충청남북도합병설과 충남도청 이전설이 류행된후로 각처에서 모혀드는협잡배와의 술장사가 이골목져골목에서 허랑한남자의 간드로운 을 먹후게 되는동안인데 이것도 생존경쟁의 경로가되야 여하한수단을 부리든지 자긔집압헤 사람이만히오기를 바라는이들은 어엽분녀자를 서로구할야고 쓸데업는금전도 만히허비하는중이다 뜻밧게

음력 작년섯달금음날긔녀때에 남행렬차에서 십이삼세가량되여 보이는 김산옥(金山玉)이라는 어린처녀한아가나리게되엿는데 압머리는 쌕거답달답하게 느려트리고 몸에는람루한 의복을감엇스나 용모는절묘하게되엿다 마츰어느 음식뎜에잇는 사람이다리고 가게되엿섯는데 몃칠되지아니하야 한집두집거쳐 아니간집이 업게되자 그처녀의

행동 이빙글빙글웃기를 잘하고 한집에 오래잇기를슬여하는 본성(本性)인혼 광인(狂人)가티 되엇다 그러나그 용모가 어엽분까닭에 누구나 자긔집에 붓잡어두고자 하는상태이엇다

황련 지금그처녀의 래력을들으면 텰석이아닌이상에 동정의 눈물이 업지못하겟다 본래에 진주(晉州)출생으로 세살때에부친을 황련길로리별하고의지할곳업시 정든고향을떠나는어머니의 등에업히여 경성으로가게되엿섯다 어린딸의 배곱하우는것을 참아보지못하야 그모친은한남권번(漢南券番)에몸을팔더리비취(李翡翠)의 기명(妓名)을가지고 화조월석에쓰린눈물과 웃기실흔웃음으로 오고가는사람에게 두사람의생명을 매달고지내다가

무정 한것은병마(病魔)이다 산옥이 가엽한살되든해 즉 오년전에 산옥의모친도 무정하고야속한병마에게붓잡히여 다시 도라오지못하는 황련길을경성동대문밧 부인병원에서 떠나게되엿다 산옥은본래 잔약한몸이되야서 테육상발육이 충실치못한중 어머니까지일코 의지할곳이업서서 이집져집 도라다니며 어더먹게되엿다

집안 살림은 본래도넉넉지 못하엿지마는바람에 불려 간곳을 알지 못하게 되엇고 그럭저럭다니다가 사년전에조치원시장뎡(市場町)리한량(李漢良)의집에 다시오게되엿다가수월동안 그집에서 심부름을하며 주고잇다가 어린속에도죽은어머니를 생각하고 죽은어머니의 무덤이나 한번보고저하야 다시 경성으로가다가 양평읍내(楊平邑內)에서지내든바

다행 히지소사(池召史)라는이의 구함을입어 수양녀로 사랑을밧고 지소사를 친어마니보다도 더공경하고 장래를기다리든바 왜운이미진하엿든가 지소사조차 작년봄에 사망하게되엿다 불행히 지소사도 슬하에아들하나도 업고 다만수양자(收養子) 한아뿐이엿섯다 그수양자가산옥과가티잇기를실혀함으로

산옥 은그곳에서할일업시 흐르는 눈물을뿌리고 경성으로뎡처업시 올러가서도로에 방황하다가 어느사람의유인으로일본사람의곡마단으로몸이팔리게되야날마다말타기와쭐타기를공부하야몃칠되지아니하야관중압헤서말타고쭐타기에텬재라는칭찬을밧게되얏스나먹는것은하로

삼시 도한때에힌죽한랑긔식어더먹을 뿐이요 밥은사흘에한때밧게는 먹지도 못하고아츰부터잘때까지 한때에 두홉식의초산(醋酸)을 먹어어린 몸을부드럽게하야 쭐타고 말타기에자유자재(自由自在)롭게하기위하야 밤낫상에 악영향이미치는것을 도라보지아니 하고이곳저곳다닐때는객차에타보지못하고큰궤짝안에들어안쳐화물취급으로고간에실리여다니게되엿다

그럭 저럭조선에아니간곳이 업게되엿는데 작년동지달에개성(開城)에서말을타다가떠러저 약일개월동안이나 치료한후다시말타고 쭐타기에 종사하게되엿스나 겁이나고 성적이불량함으로 개성어느의사에게 진단한결과락마후에 위장에 고장이생기엿슴으로 장구히 계속하야말타기와 쭐타기에는 부덕당하다함으로 곡마단

쥬인 은사정업시또처내임으로 갈곳을 몰라개성경찰서에가서 경성까지오는 려비를어더오게되엿스나경성도역시구하야줄 사람이업슴으로 다시종로경찰서에가서 조치원까지의 려비를어더가지고 또다시 조치원에온것은 이전에오게되엿섯든 조치원에도 리한량의집을

생각 하고온것이나리한량의집에는 가지도 못하고이술집저술집으로 도라다니는 터인데 금년에 년령이십오세이나누가보든지 십일세가량 밧게되야보이지 아니할만한 어리고가련한산옥이다 누구나다 다려다가 장래에 조흔사람을 맨들고저하야되본적에 이상ㅅ 생긴듯하야환영을 하지아니하고 다만

하로 이틀묵는형식을인도하는 술집에서만 림시로다려다가그날그날에 한푼씩 거리로 취급케되여 잇다 이산옥의 전경은실로 엇지될것이냐? 곡마단의소위도생각하지아니할수업다(조치원일긔자)

松禾에 農民會創立

삼백여명이모히여

소작농민의노예생활은갈사록전취수단은천천새방법이백출하야농촌의피폐와 무산자의 고통은 일반농민에게 잠시도 안정을보존할수업게 됨으로 농민의계발과상조를도모하여서 농민 최고의리상을 달성하기를 목적하고송화(松禾)읍내유지십여인이 농민회를발긔하고회원을모집한바 참가회원이 삼백오십여인에 달하엿스며지난이십칠일에창립총회를당디공립보통학교내에서개최한바 약이백오십인의 회원이참석하야 대성황을 이루엇스며김제헌(金濟憲)씨의상세한취지설명이 잇슨후 동씨사회하에김억성(金瀅星)씨의규측초안설명이잇슨후 약간의 수정한원안을일치가결하엿고 집행위원십오인을선뎡하고 내빈의 축사가잇슨후폐회하엿는데 농민의 모임이처음이나 정황중에 질서가정돈하고 [illegible] 량해가만허서특별 지장이업시 사업이진행될듯하다는데 집행위원제씨는 일치단결하야 사업이 성공하도록 지금부터 맹렬히 분투코저결심하야 제반준비와 디주에대한방침을 협의하는중 만일디주나 타반대하는 자에대하여는 전국뎍행동을취할터이라더라(송화)

安岳爭議로 舍音에게辭退勸告

만일속히해결이아니되면 군당국에서해결하겟다고

황해도안악군 대원면한천평(黃海道安岳郡大遠面漢川坪)의 디주민희식(閔熙植)에게대한소작쟁의는 긔보한바어니와 그후에 진정서를접한 군당국과 경찰당국에서는 사음오계영(吳啓榮)을 소환하야 소작인을동정하라고 설유까지하엿스나 아직까지 원만한 해결이업섯슴으로 소작인대표

세사람은 서울에올라가서 디주민희식을 직접면회하고 소작인의 정경을말하엿든바 디주의말은 사음이상당히 처리할터이니 사음과 상의하라하엿슴으로 상경하엿든 소작인대표들은 다시사음과상의하엿스나 역시원만한 해결을 엇지못하고

다시당국 에설유원을데출하엿든바 당국에서는 지난달이십륙일에 사음을소환하야 사음에게 디주가소작인을소작권을 취소하라는 소작인이누구인자를 물엇든바 외동인(外洞人)과 디주에게 투서한사람이라하매 군수의말은 사음은상당한 긔독신자로서 엇지 그와가튼가혹한일을 하느냐하면서 사음을 사퇴하는것이뎍당

하다는뜻 으로사퇴를권고하는동시에 이십팔일까지 원만해결을 안는경우에는 군당국에서 해결하겟다는뜻을 말한후 돌려보냇다더라(안악)

農監은說喩放送

동텩의명령이라변명

봉산군서종면례로리(鳳山郡西鍾面禮老里)사는동텩회사사리원지뎜(東拓會社沙里院支店)에서근무하는전량(泉朗)과김려준(金麗俊)은소위농감이라해가지고소작인이십여명에게 매두락삼원식계산하야바닷다함은 긔보한바와갓거니와 농감박동익은 자발뎍으로 한것이아니라 동텩의명령인고로 그가티하엿다 하는데 소작인들은 소작료미납자의소작료도 일을회사수입금으로긔입하엿던것까지 일백오십원을 즉시소작인에게 돌오내주겟다는고로 당디경찰서에서 엄중히 설유한후 유치되엿던 전긔 박동익농감은이십사일에 돌려보내엿다고하더라(사리원)

蠅十匹에二錢

인천서의파리예방책

인천경찰서에서는 당디 각소학교(各小學校)와 련락을 취하야 파리(蠅)예방에주력하는 동시에 부화긔(孵化期)전부터 박멸할 계획이라는데 이에대한 방침은각소학교생도의 학용품(學用品)을사쓰게하기위하야 삼월중(三月中)에잡는파리열마리(十匹)의보수는이전(二錢)이라하며사월중(四月中)에는 일전(一錢)이라는데 아모조록은 넓히보급하기를바란다더라(인천)

怒馬가商店에奔入

류리창을깨치고들어가 손해가백오십원이나돼

지난이일오전아홉시경시내태평통(太平通)이뎡목 오십일번디 정상(井上)석탄뎜의 마차를 김중현(金仲鉉)이 가지고 본뎡(本町)이뎡목중촌상(中村昇)상뎜압을지나가든중 별안간 말이성을내여 중촌의류리창을 깨트리고 뛰여드러가서 한참소동을닐의키엿다는데 손해는 약일백오십원가량이라더라

爆藥爆發로 四名重傷

텰도공사중

금강산전긔텰도(金剛山電氣鐵道)가개통된후로김성창도간(金城昌道間)선도공사에 착수하야오든바 지난달이십삼일 오후열시경에 김성면농거리(金城面濃居里)에서 인부사십명이 남포로구멍을파고약을너코다지다가 폭발이되여 인부사명이 중상을당하야 생명이 매우 위독한중그중상자의모양은 눈으로 참아볼수업다는데 중상자의씨명은 다음과갓다더라(김화)

瑞山李國鉉(三一) 申俊逵(一〇) 住所不明李順石(三二) 朴在達(四〇)

전방진깬이놈 기생외입으로

료리뎜을망하게해

지난이십오일경에경긔도안성군이죽면죽산시(安城郡二竹面竹山市)중국료리데일관(中國料理第一館)의중국인권빈주(權彬周)와조선료리봉양관(朝鮮料理鳳陽館)주인 천옥향(千玉香)과기생박계월(朴桂月)과박화중월(朴花中月)의네명을당디경찰관주재소에서호출취됴하얏다는데 이제그자세한내용을드른즉전긔중국료리는당디정모(鄭某)의경영으로 전긔권빈주를 깬이로사환하야오든바 작년구월이후로 현금의수입이업고 매입매출의 문부가불분명함으로 전긔뎡모는 수차설유를하얏스나 동중국인은 말을듯지아니하고 전긔봉양관에 자조출입하야 무슨내기인지는 자세히 알지는못하되 기생들과 화투를 마니하얏다는데 지난이십사일에 뎡모가이사실을알고 문부를 됴사하야보리뎡을 타인에게 매도하자권빈수는그눈치를알고 양장피(洋將皮)압비해삼동수종의식료품삼십여원어치를 훔쳐가지고 전긔봉양관에갓다둔것이발각되엿슴으로 뎡모는문부를 정밀히 살펴본결과 수백원의금전이소비된것이 또다시 발각되여 당디경찰에 고소를 하얏슴으로 동경찰은 전긔생이와 기생들을 호출하야 취됴한것이라 하며아직도그내막에 흥긔한 문데가 잇서봉양관과공모가되엿는지도알수업다하며 권빈수와 기생화중월과는또한비밀한 관계가 잇다더라(죽산)

骨肉相爭

형은아우를걸어고소 아우는또친형을고소

긔보=대구 일류부호김두하(金斗河)씨는작년에 그의아우인경산군(慶山郡)김두남(金斗南)을상대로 칠만여원 약속수형청구소송을한 사실은 아즉까지일반의 긔억에 남아잇거니와 이제는다시아우 김두남으로부터 그의형김두하를 상대로 작년칠만여원의약속수형은 전연 무근한말인즉 그혐의를 하얏다 고고소를 데긔하얏다는데 그당시에 동시에 위조수형을 하얏다고 그당시에 전긔 김두하의집에 서긔로잇는 뎡락영(鄭洛永)이가위조리서를 작성하얏다는것은 사실이 상위된것이라는바 이사건이 장차엇더케 발뎐될는지 일반은 자못흥미를 가지고주목중에잇다더라(대구)

青年縊首自殺

거미에실패하고서

삼일 새벽네시쯤하야 인천부송판뎡(松坂町)일뎡목십삼번디 송촌(松村)이란일본사람의집엽「아가시아」나무우에다허리띄로목을매고 참혹한죽엄을한 사람이잇는것을 대화조(大和組)군들이지나다가 발견하야 곳 관할경찰서에 보고한바되여 보를접한 경찰서 에서는현장에달려가일일히 됴사하여 본결과 성명은 아직미상이고년령은 삼십삼된 조선청년이라는데 몸에 가진물건은 외리(外里)일백이번디 전당포(典當鋪)하는 리춘일(李春一)이라고 쓴 전표 한장외에는 아모것도업스니 확실한원인은알수업스나아마미(期米)에 실패하고 그와가티 죽은듯하다더라(인천)

不備莫甚한 豊川公普

금년에도수리안하면 또큰문제가이러날듯

풍천공립보통학교는대정삼년의창립으로 칠학급에 근사백명학도를 수용하는중이나 겨우삼개교실이외에는 전부구관아를 수리한협소한 교실임으로 교수상불편이 불소한바 그중에도녀자부교실은 더욱어두운가운데 문짜지도 불완전하야 치위를막을수업스며 십여평되는 교실중간에 기둥이 다섯이나 새를막어서 멀리안즌 생도는 선생의 얼굴을 보기에도힘이들고칠판에 쓴것을 알어보기도어려운 형편임으로 누구나학부형되는이는 한심하는바이며 사무실도 겨우륙평내외에 칠인의교원이들게됨으로한책상에두사람식안지나 오히려 용신할수가업서 혹시래빈이오면 교원은밧게서서 드러오지도못하는 형편인바 년전에도교실문데로 도당국에 진정한일까지 잇섯스나 중간 위전(僞電)으로 인하야실패하고 도라온일도 잇지만은그당시에도 군수가 신년도에는신교실을 개수증축할것을 재삼 언명하얏스나 금년도에 겨우 교실을증축함에 불과하고 운동장은 데조교련도 넉넉히 못하는형편임으로더욱각종운동과유희는물론마음대로할수업고기타각종설비가모다불비하야송화읍내나인근각디와정도를비교하면말이못될디경임으로일반의불평은자못심하야새학긔에합당한증설과동시에 교실증축한것을 주목시하는바인데 만일신년도에도 불비막심한림시교실을 그대로사용케하거나 교실과 사무실을충분하도록 증축치못하게되면 폭은또다시불평이 격앙하야 문데를니르키게될듯하다더라(송화)

五氏慰勞會盛況

인천방역비잔금(防疫費殘金)문데로 검사국까지송치되야 오래동안 텰창생활을하다가 지난이월이십삼일에 비로소 긔소유예(起訴猶豫)로방면된 강복양(姜復陽)곽상훈(郭尙勳)안긔성(安基成)류두희(劉斗熙)고일(高逸)오씨에대한 위로회(慰勞會)가 잇다함은 긔보한바 가티지난이일오후아홉시부터 당디룡리(龍里)동금두에서 개최되얏다는데 인천 청년련맹대표리승엽(李承燁)씨개회사로비롯하야 곽상훈안긔성 량씨의답사가잇슨후 피로연이 열리엿다하며 참석한 회원은무려오십인의성대한 피로회도동열한시에무사히폐회하엿다더라(인천)

落葉긁다가 警察署에

동대문서에는 매일몃건식잇다

치위는 심한데 먹고불때일것이업서서 길가로 도라다니며찬밥과나무조각조희(紙)조각을 어더서 긔한을 방어하다가그역시할수업서서 본의는 아니나마나무산에가서락엽(落葉)을글께되는데 현대법률은 그를구하지는못하고도리여 죄라고 하야일일히 처벌을 하는바시내동대문서(東大門署)는빈민을 만히포유하고 동대문밧그로 산야(山野)가잇는관계로산림보호령(山林保護令)위반에저촉된범죄건수가 매월십여건식 된다는데 지난이일에도 시외고양군숭인면석곳리(高陽郡崇仁面石串里) 김석손(金石孫)(五六)리자근산(李者斤山)(三三)두명이석곳리에 잇는삼정물산회사(三井物產會社) 보안림에서 나무를 하다가소관서원에게데포되엿다더라

嬰兒屍發見

필경은엇던못된계집이 불의의자식을죽인것인듯

평양신궁(平壤神宮)뒤들에서는 지난일일 오후세시경에 통행하든사람이 어린 아이(嬰兒)시톄를발견하엿는데 그러한 급보를들은 부내경찰서에서는 실디됴사를 함과 동시에 시톄를 거두어자혜의원에서 해부까지 하엿는데 필경은 엇던불의의 녀자가나흔지수삼월가량된 아이를 눌러죽인것으로판명되엿다더라(평양)

휘파람

▲인천박문보통학교에서는교원해직시킨문데로 분규가생기엇다그런데그원인들을들으면교원들의암투라고한다▲근래에자조일어나는각학교의분규사건은 그원인이 다갓지는안코그중다수가 교원에대한학생의불평이라한다▲그러나학교문데 학생문데로 일어난분규에도 항상그리면에는 직원의암투가숨어잇는것을 만히 엿볼수잇섯다 ▲그러나 직원들은말하기를학생들이 시험보기 실혀서맹휴를한다는것이 선전하는구실이엇다지금박문교선생도어떠한구실은 몰론잇슬줄인다 그러나그런빗이 업기만은 못하지아니하나

自轉車로三萬哩를踏破한
印度青年世界一週講演
來六日夜七時半 平壤天道教堂에서
聽講料 普通三十錢 學生十五錢
主催 平壤崇專學生青年會 平壤基督教青年會 天道教青年黨平壤支部 平壤實業青年會 平壤青年會 時代、東亞、朝鮮三平壤支局